

건강 칼럼

한국 비만 현황과 위고비 대면 처방의 중요성

최근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비만 상황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성인 남성의 41.1%, 성인 여성의 27.2%가 과체중 또는 비만 판정을 받았으며, 특히 30-50대 연령층에서 비만 유병률이 급증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체중 문제를 넘어 심혈관 질환, 당뇨, 대사 증후군 등 심각한 만성질환의 위험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고비(세마글루타이드)의 출시는 비만 치료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기존 비만 치료제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메커니즘을 가진 위고비는 GIP-1 수용체 작용제로, 단순 체중 감량을 넘어 대사 건강 개선에 획기적인 접근을 제시하고 있다. 위고비의 효능은 다차원적이다. 첫째, 식욕 조절 메커니즘을 통해 섭취 칼로리를 자연스럽게

감소시킨다. 뇌의 포만감 중추에 작용하여 과도한 음식 섭취를 억제하고, 섭취량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도록 돕는다. 임상 연구 결과, 평균 15-20%의 체중 감량 효과를 보였으며, 이는 기존 비만 치료제에 비해 획기적인 수치다. 둘째, 인슐린 저항성 개선 및 혈당 조절 효과가 탁월하다. 특히 제2형 당뇨 환자들에게 혈당 관리와 동시에 체중 감량을 가능하게 하는 복합적인 치료 접근법을 제공한다. 단순한 체중 감량을 넘어 대사 건강 전반을 개선하는 것이다. 그러나 위고비 치료에 있어 대면 처방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비만은 복합적인 만성질환으로, 개인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전문의의 접근이 필수적이다. 대면 처방을 통해 가능한 핵심적인 접근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밀한 개인 맞춤형 치

료를 계획 수립이 가능하다. 환자의 기저 질환, 대사 상태, 심혈관 위험 요인 등을 상세히 평가해 최적의 치료 전략을 세울 수 있다. 둘째,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부작용 관리가 가능하다. 위고비는 소화기 부작용, 체장열 위험 등 세심한 관찰이 필요한 약물이기때 정기적인 대면 진료를 통한 실시간 관리가 중요하다. 셋째, 포괄적인 생활습관 개선 접근이 가능하다. 영양 상담, 운동 처방, 심리적 지원을 포함하는 통합적 치료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다. 위고비는 비만 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약물 그 자체가 아니라, 전문의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holistic한 접근이다. 비만은 더 이상 개인의 의지 문제가 아닌 복합적인 의학적 질환임을 우리는 인식해야 한다.

장 남길

제이엠의원 미국점 대표원장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노트르담 대성당, 일반인 대상 첫 공개 미사



8일(현지시각) 프랑스 파리의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첫 공개 미사가 열리고 있다. 노트르담 대성당은 2019년 4월 화재로 5년여의 복원 공사 끝에 7일 각종 정상들이 참석한 재개관 기념식이 열렸고 이날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개 미사가 열렸다

마리아상에 꽃잎 뿌리는 칠레 가톨릭 신자들



8일(현지시각) 칠레 발파라이소의 바스케스 성소에서 연례 '성모 마리아 원죄없는잉태' 행사를 마친 신자들이 성모 마리아 동상에 장미꽃잎을 뿌리고 있다. 마리아상에 꽃을 헌화하는 것은 마리아의 순결과 거룩함을 상징한다.

사설

미국 전기차 보조금 폐지

트럼프 당선인 팀이 '전기차 보조금 폐지'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국에서 제조된 자동차·배터리에 각종 세제 혜택을 주겠다고 해서, 대미 투자를 늘려온 우리 관련 업계에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트럼프발 충격이 벌써 시작됐다는 분석이다. 미국 공화당은 정권 인수를 위한 백악관 회동이 끝나자마자 '바이든 정책 지우기'가 시작됐다. 첫 번째는 전기차 의무화 정책이다. 도널드 트럼프는 지난 7월 "저는 취임 첫날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폐지할 겁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트럼프 당선인 팀이 '전기차 보조금 폐지'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플레이션감축법, IRA에 따라 전기차 구매 시 대당 최대 1천만 원(7,500달러)을 세액 공제해주는 혜택을 폐지하고

트럼프의 감세 공약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이 방안이 현실화되면, IRA에 맞춰 대미 투자를 늘려온 우리 자동차나 배터리 제조사들이 타격을 입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눈길을 끄는 점은 일본 머스크의 테슬라 측도 보조금 폐지를 지지하는 입장이라는 점이다. 테슬라가 피해를 볼 수 있지만, 경쟁사가 더 치명적이어서 장기적으로 테슬라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테슬라 주가는 6% 가까이 하락했고, 우리나라 배터리 관련 기업들(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홀딩스 등)의 주가도 급락을 면치 못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행보가 벌써부터 우리 경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평가다. 트럼프발 충격으로 '한국도 영향권'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정부는 대응책 마련에 적극 나서기 바란다.

전북 찾은 이진희 컬렉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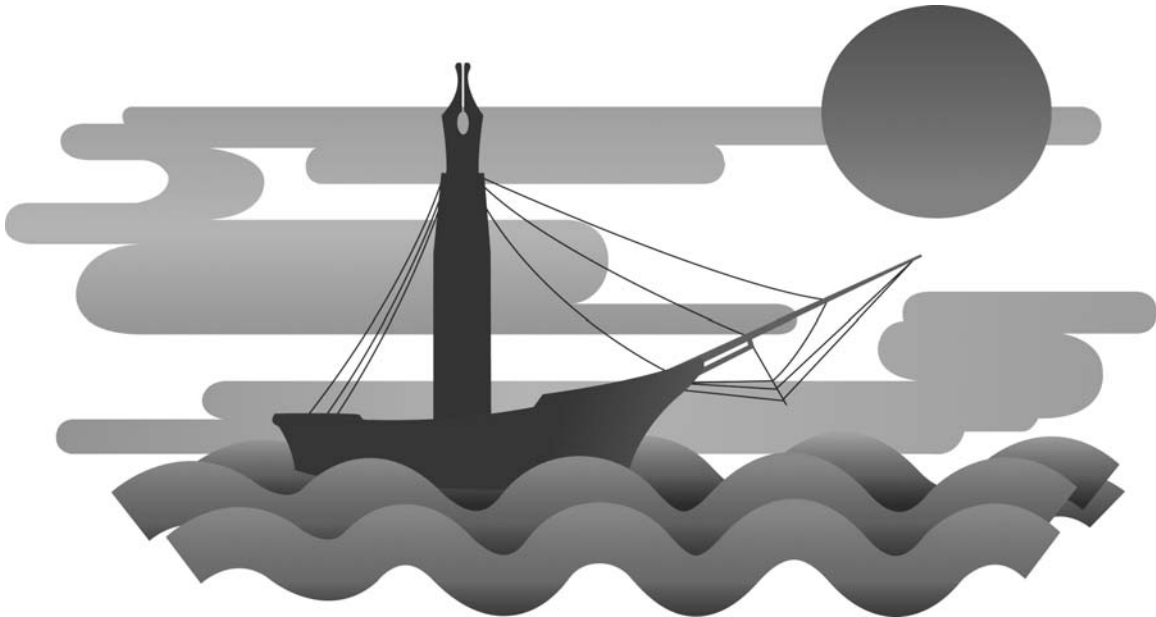
2년 간 전국 순회를 한 '이진희 컬렉션 특별전'이 최근 전북에서도 열려 관심을 모으고 있다. 우리나라 근대와 현대 미술을 대표하는 작가 47명의 작품이 전북 완주군 구이면 전북특별자치도립미술관에서 전시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진희 컬렉션을 계기로 마련된 이번 전시회를 찾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다. 전시장에는 '포대기에 아이를 업은 채 절구질을 하는 어머니'를 표현한 박수근의 대표작도 등장했다. 회색조의 토펙한 색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저마다 가진 고유의 빛깔이 은은함을 더하고 있다. 수차례 덧대고 붉어 내 만든 거친 질감이 우리 삶의 투박함을 드러낸다. 이중섭 작가의 〈오줌 싸는 아이〉에서는 개구쟁이 자세를 하고 있는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함을 읽을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립미술관 학예연구사는 "이중섭 작가의 1940, 1950년

대 작품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뒤에 보이는 작품처럼 아이와 동물을 소재로 한 작품들도 많이 보실 수 있고요."라고 설명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나혜석과 장욱진 등 한국 근현대의 대표 작가들도 만날 수 있었다. 그밖에 전시장에는 간결한 점과 획으로 사람의 생동감을 표현한 이응노의 '군상'도 걸렸다. 호탕이 그림으로 이름을 떨친 황중하의 '호족'까지 140여점의 작품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다. 전시장을 찾은 관람객들은 대부분 흠족해 했다. 이들은 모처럼 의미 있는 작품들을 감상했다고 평했다. "저희한테는 새로운 기회인 것 같고요. 정말 잘 왔다고 생각을 해요. 사진도 찍었구요. 지인들한테 추천할 거예요."라고 했다. 2025년 2월 초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사전 예약자 우선 입장으로 진행되고 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